

한강 발원지의 역사적 논란에 대한 검토

용추(龍湫)는 검룡소(儉龍沼)가 아니다

김 강 산 [태백문화원장]



태백문화원

한강 발원지의 역사적 논란에 대한 검토

용추(龍湫)는 검룡소(儉龍沼)가 아니다

김 강 산 [태백문화원장]



태백문화원

1. 서론

2. 본론

- 1) 자료의 수집
- 2) 자료의 독점
- 3) 지도의 제작
- 4) 동여도(東輿圖)는 어떤 지도인가?
- 5) 동여도(東輿圖) 속에 나타나는 표기오류의 사례들

- (1) 활기촌(活耆村)
- (2) 고석령(孤石嶺)
- (3) 용연(龍淵)
- (4) 아곡천(阿谷川)
- (5) 죽현천(竹峴川)
- (6) 갈전산(葛田山)
- (7) 토산(兔山)
- (8) 대전리(大田里)
- (9) 용추(龍湫)

6) 용추(龍湫)는 어디 인가?

- (1)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
- (2) 용연리(龍淵里) 용소(龍沼)
- (3)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내의 용소(龍沼)들
- (4)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나는 용추(龍湫)

7) 검룡소(儉龍沼)는 새로운 발견이다.

3. 결론

한강 발원지의 역사적 논란에 대한 검토

- 용추(龍湫)는 검룡소(儉龍沼)가 아니다 -



김 강 산 [태백문화원장]

1. 서 론

한강(漢江)은 대개 백두대간(白頭大幹)의 마루금 서쪽에서 발원되어 강원도의 영서(嶺西) 땅을 적시며 수도권을 관통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하여 발전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된 강이기에 현대인들에게 한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선조의 도읍터인 서울을 관통하는 강이자 수운(水運)을 통한 내륙의 중요한 수로교통(水路交通)의 요충이었기에 한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대단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강이다 보니 발원지에 대한 인식도 오래되어 고려시대에 편찬한 삼국유사의 보질도태자 조에 우통수(于筒水) 물로 차를 끓여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권근(權近)의 수정암기(水精庵記)에 의해 우통수(于筒水)가 한강의 발원지로 언급 되어 지기 시작 하였다. 그 뒤 각종 문헌은 권근의 글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여 한강의 발원지가 우통수라는 기록이 넘쳐나 근대적 지도의 효시라 할 서기1921년 경 일제에 의해 제



작된 등고선이 있는 현대적 지도가 나오기 전까지 회자되었고 그 뒤에도 깊은 성찰 없이 오대산(五臺山) 우통수(于筒水)가 각종 사전류에 게재 되었다.

하지만 서기 1662년 저술된 척주지(陟州誌)의 장생리(長生里:현재의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지역) 조에 이미 한강(大江)의 가장 먼 물줄기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상징적 발원지와 실제적 발원지에 대한 인식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고 보여 진다.

서기 1981년 경 강을 연구하던 이형석씨가 강의 발원지에 대해 글을 쓰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 발원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뒤를 이었다. 그 여파로 서기 1984년 경 한강(漢江)의 발원지(發源地) 검룡소(儉龍沼)가 발견되었고 우통수와 지루한 발원지 논쟁 끝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 받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서기 2010년 국가지정 명승지 제 73호로 지정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동여도(東輿圖)라는 지도에 용추(龍湫)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용추가 바로 검룡소(儉龍沼)라는 논지의 글이 유포되면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발원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며 진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하였다.⁽¹⁾

용추(龍湫)를 검룡소(儉龍沼)로 비정하는 사례는 정확한 기초조사 내지는 현장성이 없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옛 지도(地圖)나 문헌(文獻)에만 의존하고 나아가 그 도서(圖書)나 문헌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겨나는 편견이라는 등의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 글에서는 그 지도와 문헌에 기록된 것의 진위(眞僞)를 가려 한강(漢江) 발원지(發源地)의 역사적(歷史的) 논란(論難)에 대한 검토(檢討)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

2. 본 론

1) 자료의 수집

교통과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조정에서 어떤 편찬사업을 하게 되면 각 지방 관아에 시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世宗) 16년(서기1434년) 5월 24일자 기록을 보면,

“호조에 전지하기를, ‘이 앞서 그린 우리나라의 지도(地圖)가 자못 서로 틀린 곳이 꽤 있어 이제 이미 고쳐 그렸으니, 각 도의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그 경내(境內)의 관사 배치의 향배처소(向排處所)와 산천내맥(山川來脈), 도로(道路)의 원근이수(遠近里數)와 그 사면(四面)의 이웃 고을의 사표(四標)를 갖추어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감사(監司)에게 전보(轉報)하도록 하고, 감사는 각각 주군(州郡)의 차례로 폭(幅)을 이어 올려 보내서 참고하도록 하라.’ 하였다.”(傳旨戶曹,前此畫成本國地圖頗有相錯處今已改畫令各道各官守令各其境內官舍排置向排處所及山川來脈道路遠近里數與其四面隣郡四標備細圖畫轉報監司監司各以州郡次第連幅上送以備參考)⁽²⁾

라고 하였으니 지도를 만들거나 그 밖의 도서를 만들 때도 지방관아에 지시하여 각종 자료를 올려 보내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의 지시에도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는지 문종(文宗) 때 다시 지시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종 즉위년(서기1450년) 12월 28일자 기록에 보면,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여러 도의 군읍(郡邑)은 서로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비록 혹은 군사를 징발하는 일이 있어도 그 멀고 가까움이 애매하여 조치하기를 잘못할까 두렵다. 각 도(道)로 하여금 주군(州郡) 간의 거리의 이수(里數)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고 참고하여 지도(地圖)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親事上曰我國諸道郡邑相距遠近未知故雖或有徵兵之事昧於遠近恐失措置其令各道詳錄州郡



相距里數以聞參考作地圖可也)⁽³⁾

라고 하였으니 세종 때 호조에 지시하여 주군(州郡)간의 현황과 도로(道路)의 원근과 이수(里數)를 보고하라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미비하니 문종이 다시 지시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조정에서는 지도(地圖)뿐만 아니라 사초(史草)와 그 밖의 각종 문서자료도 강제적으로 수집하고 만약 수집에 응하지 않으면 벌로 다스리기도 하였으니, 같은 책 세종 6년(서기1423년) 12월 29일자 기록에 의하면,

“변계량이 아뢰기를, ‘건문2년 경진 11월부터 영락16년 무술 12월까지 춘추관 이하에 보임되었던 여러 사람들의 사초를, 서울은 오는 영락22년 2월 그믐날까지, 경기 충청 황해 강원도 등은 3월 그믐날까지, 경상 전라 평안 함길도는 4월 그믐날까지를 한도로 하여 일체로 모두 수납하게 하고, 미납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전례에 의하여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백은(白銀) 20냥 쫓을 징수하여 나라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卞季良等謹言:建文二年庚辰十一月至永樂十六年戊戌十二月充春秋館以下各人史草京中則限來永樂二十二年二月晦日京畿忠清黃海江原等道三月晦日慶尙全羅平安咸吉道四月晦日一皆收納其有未納者宜倣前例子孫禁錮徵白銀二十兩以嚴邦典從之)⁽⁴⁾

라고 하였다. 세조 6년에는 전국 8도 관찰사와 개성유수에게 시문의 수집을 명하니,

“8도의 관찰사와 개성부 유수에게 유시하길, ‘고금의 우리나라사람들이 지은 시문(詩文)은 좋고 나쁨을 논하지 말고, 비록 남아있는 편(編)이나 짧은 장(章)이라도 남김없이 찾아내어 주석(註釋)한 자들이 기술한 것과 아울러 보내라.’ 하였다”(諭八道觀察使及開城府留守曰:古今東人所製詩文勿論善惡雖殘編短章無遺搜訪并釋家所著以送)⁽⁵⁾

라고 하였고, 이어서 세조 12년(서기1466년) 11월 4일자 기록을 보면, 대사헌 양성지(梁誠之)가 상소하길,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사기(史記)는 전대(前代)의 선악(善惡)을 상고하여 만세(萬世)의 권계(勸戒)를 삼는 것이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가장 간절하게 되어 성리(性理)의 책과 더불어 서로 체(體)와 용(用)이 되는 것입니다. 지리(地理)는 주군(州郡)의 연혁과 산하(山河)의 액새(扼塞)를 기재한 것이므로, 소하(蕭何)는 이로써 먼저 도적(圖籍)을 수집하였고 동파(東坡)는 지장도(指掌圖)를 만들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대국(大國)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병법에 이르러서는 정전(征戰)의 승패(勝敗)를 말한 것이니 더욱 마땅히 요점을 추려서 장수와 군사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빌건대, 제가(諸家)의 병법(兵法)과 사기(史記)와 지도(地圖)를 모두 집록(輯錄) 하도록 하여 일대(一代)의 전고(典故)를 이루게 하소서...”(臣竊意史記所以考前代之善惡爲萬世之勸戒最切治體與性理之書相爲體用者也地理所以載州郡沿革山河扼塞蕭何以之先收圖籍東坡以之指掌作圖是誠大國之不可無者也至於兵法所以論征戰勝敗尤當撮要以訓將士者也乞諸家兵法史記地圖竝令輯錄以成一代之典...)⁽⁶⁾

하며,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서책이나 지도 등을 수집 하도록 상소하고 있다.

예종(睿宗) 1년(서기1469년) 9월 18일 기사를 보면,

“모든 천문(天文) 지리(地理) 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주되 상 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을 상 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드려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及凡于天文地理陰陽諸書家藏者京中限十月晦日呈承政院外方近道十一月晦日遠道十二月晦日納所居邑納者超二階自願受賞者及公私賤口賞綿布五十匹隱匿不納者許人陳告告者依上項論賞匿者處斬其速諭中外)⁽⁷⁾



고 하면서 왕이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 지리에 관계되는 자료를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숨기면 참수하여 죽이겠다고 유시(諭示)하니 개인이 감히 소장할 수 있겠는가. 왕조시대에 있어서 모든 자료는 국가 곧 왕의 것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거두어들이 수 있었다. 적당히 회유하고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자료는 백성들이 보관하고 있지만, 국가는 언제라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2) 자료의 독점

사실 왕조시대에 개인의 사유(私有)나 개인의 자유(自由)는 곧잘 국가라는 대의명분에 의해 박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다. 혹시 지도(地圖)를 개인(個人)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에 바치지 않고 개인이 몰래 소장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국가의 기밀을 사사로이 가지고 있었다 하여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 왕조시대 였다.

지도(地圖)라던가 지지(地誌)가 다른 나라로 유출(流出)되어 침략(侵掠)에 도움이 된다면 역적죄(逆賊罪)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다른 나라의 정세를 알고자 하면 그 나라의 지도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中宗) 31년(서기1536년) 5월 10일 기록을 보면,

“정원(政院)에서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천하여지도의 일에 대해 일을 잘 아는 통사(通事)에게 물어보니, 전에 가지고 온 지도는 여염에 있던 것으로 구역이 상세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사년과 갑오년부터 제독주사(提督主事) 장오(張鰲)가 이 일에 뜻을 두어 우리나라 도로의 멀고 가까운 것까지 모두 탐문하여 지도를 상세하게 만들어 놓고는 늘 앉아있는 곳에 병풍처럼 걸어놓고 쇠못으로 박아 놓아서 형편상 가져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글씨 잘 쓰는 자로 하여금 모사하더라도 1~2일에 끝내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또한 관청에 있는 물건이라서 혹 보지도 못하게 금지시킬지도 모를 일이나, 다행히 여염에 이러한 지도가 있으면 사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도는 한 폭의 종이에 인쇄한 것이니 그 값이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선 성절사(聖節使)가 가는 편에 하유하여 사 올 수 있으면 사오고 사올 수 없으면 다음 성절사가 가는 길에 사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중국의 민간에 천하지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지금 만일 가포(價布)를 보내지 않고 사적(私的)으로 사오라고 하면 혹 사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수도 있을 것이니, 곧 해조(該曹)를 시켜 가포를 마련하고 서장(書狀)을 만들어서 특별히 말을 주어 빨리 가서 하유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이 중국 조정에서 금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방면으로 널리 구하



여 사가지고 올 일로 아울러 하유하라.”(政院以禮曹意啓曰天下輿地圖事問於事知通事則前者出來地圖乃閭閻間所有也其爲區別未詳但自癸巳甲午年間提督主事張鏊有志於此如我國道路遠近竝皆探問而爲圖詳盡乃於常坐處掛置如屏釘之以金勢不可取觀而欲令善書者摸之則亦不可一二日而畢也是又在官之物亦或禁之而使不得見也幸閭閻間如有此圖則可以貿來矣圖乃一紙幅所印之物其價必不甚重今姑下諭聖節使之行可貿則貿來不可則待後行貿之何如傳曰天下地圖中原閭閻間豈無有之者乎今若不送價布而私自貿來則或托以不貿矣卽令該曹價布磨鍊爲書狀給馬下諭此雖禁物多般廣求貿來事并下諭可也)⁽⁸⁾

라고 하여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천하지도를 사오라고 하고 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임금의 권위를 위해서도 천하지도 같은 것은 필요하기에 꼭 구해 오도록 한 것이다. 지도라는 것은 국가의 기밀도 되고 왕권의 권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서기 1592년 임진년(壬辰年) 4월에 왜군(倭軍)이 쳐들어오니 임진왜란(壬辰倭亂)이다. 왜병(倭兵)이 쳐들어오고 얼마 지나서 그들이 사용하던 해로지도(海路地圖)를 입수하게 되어 살펴보니 아주 정밀하였다고 한다. 선조(宣祖) 25년(서기1592년) 5월25일 기록을 보면,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왜인들의 해로지도를 보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간사한 무리가 만들어 적과 내통한 것입니다.’”(備邊司啓曰臣等得見倭人海路地圖其於形勢周議極備此必我國奸細如許通謨而然也)⁽⁹⁾

라고 하였으니, 국가의 기밀에 해당하는 지도를 적에게 넘겼으니 적이 그 지도를 보고 쉽게 우리 강토를 유린하였다고 믿는 것이다. 그만큼 지도는 중요하며 국가의 안위 문제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명나라 때는 천하지도를 사오기도 했지만,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간섭이 심해져 몰래 들여오던 지도가 발각되면서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肅宗) 3년(서기1677년) 5월 7일 기록을 보면,

“청나라 사람들이 동지사(冬至使) 일행에게서 지도(地圖)를 찾아낸 것을 들어 자문(咨文)을 보내 우리나라를 책망하고, 지도를 매매한 실정을 조사하여 주달하도록 했다. 임금이 비국(備局) 제신(諸臣)들을 인견(引見)하고 의론하게 하니,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길, ‘이는 큰 일이 아닌데도 저들이 바야흐로 우리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마땅히 따로 사주사(查奏使)를 보내야 할듯 합니다마는 재차 사신을 보내기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저 사람들은 비록 큰일이라도 오는 사신편에 부치지 않는 것을 그르게 여깁니다. 사신 복창군 이정(李楨) 등이 또한 관서에 머무르며 회보(回報)를 기다린다고 하니, 내일 빈청(賓廳)에 모여 시급하게 주문(奏文)을 지어 파발마(擺撥馬)로 내려 보내고, 방물(方物)도 시급히 마련하여 보낸다면 10일이 지나지 않아서 마땅히 의주(義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淸人以冬至使行中搜得地圖事移咨責我又令查奏其買賣事情上引見大臣備局諸臣議之左議政權大運曰此非大事而彼方疑我故如是耳似當別遣查奏使而再使有弊且彼人雖大事不以順付來使爲非使臣福昌君李楨等亦留關西以待回報云明日會賓廳速製奏文以撥馬下送方物亦速備送則不過十日當到義州矣上從之)⁽¹⁰⁾

라고 하여, 지도를 숨겨 들여오다가 짐짝을 뒤지는 바람에 들켜서 아니 할 말로 뇌물을 주고 무마시키는 일이 벌어졌었다.

지도는 국가의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자기 나라의 지도를 다른 나라에게 준다는 것은 군사적 기밀을 주는 것과 같으니 위험한 일이 된다. 만약 자기 나라의 지도를 다른 나라에게 준다면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해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는 절치부심하며 한 때 북벌론(北伐論)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숙종 때 청나라 사신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자고 하여 조정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으니, 조선왕조실록 숙종(肅宗) 39년(서기1713년) 6월 2일 기록을 보면,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품정(稟定)할 일이 있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영의정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전략) 지금 듣건데(청나라 사



람이) 우리나라의 전지도(全地圖)를 보고자 한다 하므로... 비국(備局)의 지도는 너무 자세하므로 내보일 수가 없고, 근래에 얻은 1건의 지도는 상세하지도 않고 간략하지도 않지만 틀린 것이 많으니, 마땅히 이 지도를 내보이게 해야 합니다.’ 하니, 공조판서 김진규(金鎭圭)는 아뢰기를, ‘처음에는 황제의 뜻이 있었다고 일컫다가 지금은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상직사로 하여금 대신 말하게 하니, 간사하고 음흉함이 심합니다. 저들의 뜻은 우리나라의 팔도 지형을 탐지코자 하는 것인데, 지금 만약 한 번 이런 길을 열어 놓으면 후일에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게 될 것이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좌의정 이이명(李爾命)은 말하기를, ‘사체(事體)는 그렇습니다만, 이는 대단한 일이 아닌데, 반드시 고집해 다투고자 하면 한갓 치욕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명하기를, 말을 잘 만들어 언급한 뒤에 내보이도록 하라. ‘하였다.’(大臣諸臣有稟定事請對入侍領議政李濡曰...今聞欲見東國全地圖...但備局地圖太詳不可出示近得一件圖不詳不略...以此措辭言及宜矣工曹判書金鎭圭曰初稱以有帝旨今忽稱病而使上勅替言其回譎甚矣彼意欲探知我國八路地形今若一開此路則日後有大於此者將何以處之左議政李爾命曰事體則然而此非大段必欲爭執徒貽辱矣上然其言命善爲指辭言及後出示)⁽¹¹⁾

라고 하였다. 남의 나라에 지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영의정과 공조판서는 국가의 기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좌의정과 임금은 별것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나라를 무시하고 오랑캐라고 멸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간섭받고 억압받으며 살던 때가 조선조 후기였다. 국내적이던 국제적이던 군사기밀이 중요한데, 관건은 지도이다. 지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건 군사정보이고 지리정보이다. 청나라 사람들이 지도를 보자고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니 조선의 조정이 긴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지도(地圖)이기에 지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밀과 연관된 자료는 모두가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3) 지도(地圖)의 제작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처음 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당서(舊唐書)에 의하면, 고구려 영류왕(瑩留王) 11년(서기628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봉역도(封域圖)’라는 지도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구당서(舊唐書) 열전(列傳) 제일백사십구(第一百四十九) 상(上) 고려(高麗) 조에 보면,

“정관2년 힐리가한의 돌궐을 격파하였다. 건무가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였고, 아울러 봉역도(封域圖)를 바쳤다.”(貞觀二年破突厥頡利可汗建武遣使奉賀并上封域圖)⁽¹²⁾

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고구려는 그 이전부터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기 1953년 북한의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발굴된 고구려 고분에서 ‘요동성시’의 그림지도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당시에 그림 형태의 지도가 성행하였다고 보며 조선시대 전기에 유행하던 회화적 지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김정호의 〈청구도〉 부록에 삽입된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를 참고해 보면 이미 통일신라에서도 구주의 강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지도를 만든 증거가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요사(遼史)에 보면 목종 5년에 거란에 고려지도를 보낸 일이 있다고 하였으니 고려시대에도 나름 지도가 있었다고 보며 이때에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라는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 지도가 조선 초기 지도 제작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말에 나흥유(羅興儒)가 그린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는 조선 태조 5년에 이첨(李詹)이 그린 삼국도(三國圖)나 태종 2년에 이회(李薈)가 그린 팔도도(八道圖)의 기본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그 지도의 형태는 역대제왕혼일강리도(歷代帝王混一疆理圖)라는 지도를 보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



다고 한다.

조선 세조 때 양성지(梁誠之)가 그린 동국지도(東國地圖)는 기존의 지도를 능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였으며 나중에 정상기(鄭尙驥)의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가 제작될 때까지 표준지도 역할을 하였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지도(地圖)들은 회화식(繪畵式) 지도에서 방안식(方眼式) 지도로 발전하고 다시 백리척(百里尺)의 축척식(縮尺式) 지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지도의 제작은 조선후기로 오면서 청나라와의 교류로 새로운 지도 제작법이 전해지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효시는 정상기(鄭尙驥)였다. 정상기는 백리척(百里尺) 축척(縮尺)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어느 지도 보다 정밀하였다.

조선후기에 한동안 정상기류(鄭尙驥流)의 지도가 표준이 되었고 그 뒤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으며,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는 현대지도가 나올 때까지 표준지도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연산군 3년(서기1497년) 11월 15일 기사를 보면,

“판중추부사 이극균(李克均)이 경상우도(慶尙右道)의 지도를 그려서 올리
고 인하여 아뢰기를, ‘좌도(左道)의 지도는 성종 때 그려 올렸는데 숭문전(崇
文殿)이 불났을 적에 타 버렸으며, 신(臣)도 또한 일찍이 그 본(本)을 소장해
두지 않았기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判中樞府事李克均畵慶尙右道
地圖以進曰左道地圖則成宗朝畵進而燒於崇文殿失火時臣亦未嘗藏本故不悉其祥)’⁽¹³⁾

라고 하여 경상우도의 지도를 그려 바치고 아울러 경상좌도의 지도도 그렸
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책 중종 8년(서기1513년) 2월 4일 기사를 보면,

“순변사 황형(黃衡)이 함경도 지도를 올리다.”(巡邊使黃衡進咸鏡道地圖)⁽¹⁴⁾

라고 하여 뜻있는 사람들이 지도를 그려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

목할 것은 이극균의 말이다. 이극균은 경상좌도의 지도도 본인이 그렸음을 말하고 있지만, 원본을 임금에게 바치고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부분이다. 시사하는 바가 큰 말이다. 이 부분을 유추해 보면, 개인은 지도의 소장이 불가함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모든 지도 제작자들은 개인이 소장하려고 지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에 바치려고 만든 것이며 나라에 바치므로 해서 공(功)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도의 제작은 개인이 하지만 그것은 곧 국가(國家)를 위해 하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방의 군현(郡縣)에 지시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들을 짜집기하여 만드는 것이 고지도(古地圖)였다. 여기에서 한발만 빼앗다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게 되어 벌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지도의 개인 소장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어쩌다 지도를 제작하게 되면 곧 나라에 바쳐 충성을 표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英祖) 33년(서기1757년) 8월 9일 기사를 보면,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가 신하들을 불러 소고(召誥)를 강(講)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도(地圖)를 자세히 보니 과연 기이하였다. 인군(人君)이 보고 싶어 하기만 하면 가히 얻지 못할 물건은 없겠다.’ 하니, 수찬 홍양한이 말하기를, ‘임금님이 좋아하면 아래 사람들도 더욱 심하게 좋아할 것이니, 임금의 호오(好惡)는 신중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 한 가지 일에서도 역시 경계하여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홍양한이 말하기를, ‘또 팔도(八道) 분도첩(分圖帖)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니, 가져오라 명하고는 이를 보고서 하교하기를, ‘이제 팔도 분도를 보니, 더욱 지극히 정밀하다. 역시 전도(全圖)에 의거하여 모사하여 들고 아울러 모사한 것을 본관(本館)과 비국(備局)에 비치하라.’ 하매, 홍양한이 말하기를, ‘신은 지도의 일에 대하여 삼가 소회가 있습니다. 대개 여도(輿圖)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소중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여지승람(輿地勝覽)〉의 편찬이 이루어진 것이 이미 수 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의 연혁은 다시



고징(考徵)할 수가 없으니 이어서 편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경솔히 의논드리기 어렵습니다. 열읍(列邑)의 읍지(邑誌)는 곧 여지(輿地)의 근본으로서 근래의 연혁을 가히 고징(考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본관으로부터 8도에 글을 보내어 열읍에서 읍지가 있는 것은 등본(謄本)이나 인본(印本)을 막론하고 모두 모아서 올려 보내게 하며, 글로써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 곧 수집(修輯)해 엮어서 올려 보내게 하여 고거(考據)에 대비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바가 매우 좋다. 곧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上御涵仁亭召儒臣講召誥上曰細覽地圖果奇矣人君欲見則無不可得之物矣修撰洪良漢曰上之所好下必甚焉人主好惡不可不慎於此一事亦有鑑戒之道矣上曰然良漢曰又有八道分圖帖命取入覽之教曰今覽八道分圖尤極精該亦依全圖模寫以進竝令摸置本館及備局良漢曰臣於地圖事竊有所懷夫輿圖者有國之所重也我國勝覽之纂成已過數百年其後沿革更無所考不可不續成而此則姑難輕議至於列邑邑志卽輿地之本挽近沿革可以考徵請自本館移文八道列邑之有志者無論謄本印本竝收聚上送其無成書者卽令修輯編成上送以備考據焉上曰所奏甚善卽宜舉行)⁽¹⁵⁾

라고 하였으니, 영조 이후에 붓물처럼 터져 나온 지도(地圖) 제작이 왕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왕이 지도(地圖)에 관심을 표하므로 해서 너도나도 공을 세워 출세하려고 좀 더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는데 불을 당긴 것이 아닌가 한다.

김정호 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고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를 만들어 후세 지도 제작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정상기(鄭尙驥)도 지도를 만들기 위해 팔도를 헤맨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를 참고하여 당시로는 가장 정밀하고 발전된 지도를 만든 것이다.

그의 문집 농포문답(農圃問答)에 보면,

“나의 발자취가 미친 곳은 수백리에 불과하고, 듣고 본 것도 또한 한 고을 밖을 나가지 못했는데, 무엇으로서 온 나라의 고질적인 폐단을 갖추어 알겠는가? 그러나 가까운 것으로써 미루어 보면 먼데 것도 알 수가 있다.”⁽¹⁶⁾

라고 하였으니, 정상기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답사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전해오는 지도(地圖)나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여 그렇게 멋지고도 정밀한 지도를 만든 것이다.

신현(申櫟)이 지은 대동방여도서(大東方輿圖序)에 보면,

“나는 일찍이 우리나라 지도(地圖)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변사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나 옛날 집에 좀먹다 남은 지도(地圖)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증거로 삼고 여러 지도(地圖)를 서로 대조하고 여러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여 하나의 완벽한 지도(地圖)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이 작업을 김백원(金百源:김정호)에게 위탁하여 완성 하였다.”(余嘗有意於我東輿圖如籌司奎閣之藏古家蟬蠹之餘廣蒐而證定參互群本援據諸書合以裒輯因謀金君百源屬以成之)⁽¹⁷⁾

라고 하였으니, 신현 또한 전국을 답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도(地圖)와 지지(地誌)를 참고하고 대조하면서 대동방여도(大東方輿圖)를 만들었고 김정호를 각수(刻手)로 하여 판각(板刻)을 한 것이다.

김정호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최한기(崔漢綺)는 청구도(靑丘圖)의 청구도제(靑丘圖題)에서 김정호를 평하길,

“김정호는 어려서부터 지도(地圖)와 지지(地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찾고 살펴 여러 지도 만드는 법을 상세히 알아 매번 조용한 시간에 궁구하여 간편한 비람식(比覽式)을 확실히 구했다.”(金正浩年自童冠深留意於圖志歲久搜閱詳諸法之輸贏每值靜閑時確論求得比覽式簡便)⁽¹⁸⁾

라고 하여, 김정호 역시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여 지도를 제작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재건(劉在建)의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김고산정호(金古山正浩)에 보면,

“... 여지학을 좋아하여 깊이 고찰하고 널리 수집하여...”(...癖於輿地之學博巧廣蒐...)⁽¹⁹⁾



라고 하며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를 널리 수집하여 참고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서기1999년 발간된 이상태(李相泰)의 〈한국 고지도 발달사〉 ‘김정호의 전국 답사설’에 보면,

“...유재건, 최한기, 신현, 이 세 사람은 김정호와 같은 시기에 활약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김정호가 전국을 두루 답사하였다고 지적한 사람은 없다. 세 사람 모두 오로지 기존의 지도들을 두루 모아 좋은 점을 따서 집대성 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호는 유재건이 지적한 것처럼 ‘깊이 고찰하고 널리 자료를 수집’ 했거나, 최한기가 말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자료를 찾고 수집 열람’ 했으며, 신현이 말한대로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증거로 삼거나’ ‘여러 지도들을 상호 비교’ 하여 『청구도』나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나는 곳은 직접 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동인(方東仁)의 지적처럼 단빌은 프랑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당시로는 가장 정확한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라고 하면서, 전국을 발로 뛰며 지도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를 참고하고 대조하면서 지도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미천한 일개 각수(刻手)에 지나지 않았던 김정호(金正浩)가 동여도(東輿圖)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만들면서 면천(免賤)하며 출세하여 유명인이 된 것에는 왕실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며, 신현(申櫓)과 같은 인물을 만나 지도에 눈 뜨게 됐고, 재정적 자료적으로 도움을 준 최한기(崔漢綺) 같은 인물의 도움과 김정호 개인의 타고난 재주와 결합하여 당시로는 가장 정밀한 지도를 만든 것이라 본다.

아울러 지도 제작은 국가 차원에서 하지만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정 인들이고 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조합하여 지도(地圖)를 만드는 것이다. 지도(地圖) 제작법을 익힌 현지인들이 그려 올린 지도를 모아

붙이고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현대에 근접한 지도를 만든 것이다.

4) 동여도(東輿圖)는 어떤 지도(地圖)인가?

동여도(東輿圖)는 조선 철종(哲宗) 연간(年間)인 서기 1849년~ 1863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만든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전도(朝鮮全圖)이다. 일부에서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제작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목판본(木版本)인 대동여지도와는 달리 채색으로 그린 필사본(筆寫本) 지도이다. 지도에는 설명과 약 18,700여개에 달하는 지명(地名)이 실려 있는데 이 숫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도(全圖) 가운데에서 가장 많다. 수록된 고을의 이름이 적혀있는 1층과 지도가 그려져 있는 22층 등 총 23층의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原圖)에는 각 층마다 동쪽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지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책의 형태에 맞추기 위해 접혀져 있다. 이 원도(原圖)를 모두 연결하여 펼쳐 놓으면 세로 약 7m 가로 약 3.2m에 이르는 대형 전도(全圖)가 된다.

백두산(白頭山) 위쪽으로는 조선(朝鮮)의 수도(首都)였던 한성부(漢城府)와 도성(都城)이 다른 부분보다 대축척(大縮尺)으로 그려져 있어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목판본 제작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범례가 더 간단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데 반해, 동여도는 필사본(筆寫本)답게 조선 후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많은 인문정보가 담겨져 있다. 육로, 해로 등의 교통로와 진보(鎭堡) 봉수(烽燧) 등의 군사시설이 특히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십리(十里)마다 방점을 찍어 각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평지와 산지(山地)의 방점 길이를 달리하여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거리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군현(郡縣)의 경계와 역사지리적인 정보가 많이 수록



된 점이 이 지도의 자료적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한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판각(板刻)의 어려움으로 글자를 많이 넣지 못하였지만 동여도(東輿圖)는 필사본(筆寫本)이기에 제작자가 얼마든지 글자를 써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기1999년 이상태(李相泰)가 저술한 <한국 고지도 발달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대동여지도」주기(註記) 내용은 총 13,138개 인데 비하여, 「동여도」는 18,736개의 주기 내용이 있다.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동여지도」보다 5,548개가 더 많은 것이다. 「대동여지도」에서는 판각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량의 주기 내용을 줄였기 때문이다.”⁽²¹⁾

라고 하며 정확한 조사와 필사본과 판각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여도(東輿圖)의 전체적인 윤곽은 현재와 매우 유사하지만 평안도(平安道)의 중강진 부분 등 일부 다른 부분도 있고, 18,736개에 이르는 방대한 지명(地名)을 일일이 수작업(手作業)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의 각종 문헌이나 지지 등을 참고하여 18,730여개의 지명을 수록하였는데, 위치는 틀린 것이 많으나 없는 지명을 표기하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이 글에서 문제가 되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할의 7개리의 지도를 다르게 그렸는가 하면 부근의 많은 지명(地名)의 표기오류(表記誤謬) 등 완벽한 지도라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5) 동여도(東輿圖) 속에 나타나는 표기오류의 사례들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를 한강 발원지로 알려진 검룡소(儉龍沼)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례가 있기에, 과연 동여도(東輿圖)가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지도(地圖)인지 알아보고 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지도(古地圖)에 표기되는 지명(地名)이라면 그 지역에서 꽤나 이름이 난

곳이거나 지방에서 발간된 지지(地誌)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야 지도에 표기하는 것이 대체적인 상식이다. 왜냐하면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김정호(金正浩)처럼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발로 뛰었다고 하는 김정호도 오류가 많음) 지방에서 편찬한 서책(書冊)을 인용하여 관념적(觀念的)으로 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고 자료에 의존하며 자료에서 말하는 곳을 나름대로 찾아 표기하는 행위가 반복되기에 현장감이 떨어지고 엉뚱한 곳에 표기하는 일이 많은 이유이다. 그 엉뚱한 표기를 현장감 없이 그대로 믿는 일부 현대인들의 안이한 생각이 더 큰 문제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도(古地圖)에서 제시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현장조사가 있어야 하고 목적인 곳의 광범위한 주변조사가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본다.

현대적 시각에서 고지도(古地圖)의 오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으나 그 모순투성이의 지도를 신봉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스운 일을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다.

동여도(東輿圖)에 오류가 많으나, 태백산 부근으로 좁혀서 용추(龍湫)와 그 밖의 위치가 잘못된 표기지명(表記地名)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활기촌(活耆村)

동여도(東輿圖)에 보면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黃池) 바로 위에 활기촌(活耆村)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지도 제작자가 현장을 와 보지도 않고 자료에만 의존해 지도를 그렸음을 대변하고 있다.

활기촌(活耆村)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5대조 묘(墓)가 있는 현재의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活耆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 활기리(活耆里)가 황지(黃池)에서 100리도 넘게 떨어져 있는데 황지(黃池)가에 표기되어 있으니 이 지도가 얼마나 관념적인지 알 것이다.



동여도(奎10340) 태백산 부근에 잘못 표기된 곳이 10곳이 넘는다.



대동여지도(奎10333) 동여도와 지형과 지명이 같다



(2) 고석령(孤石嶺)

동여도(東輿圖)를 보면 황지(黃池)와 활기촌(活耆村) 사이에 고석령(孤石嶺)이 표기되어 있다. 이 또한 엉뚱한 곳에 표기한 사례인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또한 비슷한 우를 범하고 있다.

고석령(孤石嶺)은 태백산(太白山) 남쪽 자락인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서 천평리로 넘어오는 강원도와 경상도의 경계 지점에 있는 고직령(高直嶺)의 옛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고직령도 황지에서 100리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다. 고직령의 남쪽에는 예배령(禮拜嶺, 禮佛嶺)이 있어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삼척(三陟) 산수(山水) 조에 보면 고석령(孤石嶺)이 나오는데,

“삼척도호부에서 서쪽으로 일백 십리에 있는데 길이 좁고 매우 험하다. 안동으로 통하는데 춘양의 서쪽이고 영천 예불령의 북쪽 이다.”(西一百十里路極細險通安東春陽之西榮川禮佛嶺之北)⁽²²⁾

라고 하였다.

대동지지는 강원도 삼척에서 고석령(孤石嶺)을 언급하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위치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쪽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여도(東輿圖)는 고석령(孤石嶺)을 황지(黃池) 가에다 표기하였으니 얼마나 관념적인가?

(3) 용연(龍淵)

동여도(東輿圖)에 보면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쯤으로 보이는 지역, 태백산 남쪽 자락 하천의 끝 지점에 용연(龍淵)이라고 표시 하였다. 그래서 옛 문헌을 찾아보기로 하고 아울러 현재의 용연은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이십오(卷二十五) 봉화현(奉化縣) 산천(山

川) 조에 보면 용연(龍淵)이 나오는데,

“용연은 태백산 아래에 있는데 가물 때 기우제를 올리면 효험이 있다.”(在太白山下值旱禱雨有驗)⁽²³⁾

라고 하여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라 하였다. 위치는 확실치 않은 채 막연히 태백산 아래에 있다고 하였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봉화(奉化) 산수(山水) 조에 보면 용연(龍淵)이 나오는데,

“용연은 태백산 아래에 있다.”(龍淵:在太白山下)⁽²⁴⁾

라고 하여 더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위치 확인이 어려웠다. 옛 문헌에 의하면 태백산 둘레가 700리라 했는데, 너무 막연하다.

그래서 다른 문헌인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초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북도봉화군읍지(慶尙北道奉化郡邑誌)를 살펴보니 다행이도 산천(山川) 조에 용연(龍淵)이 나와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문헌과는 달리 장소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용연은 매토천에 있다. 하나는 오룡연이고 하나는 백룡연으로 2개의 못이 있다.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내면 다 영험이 있다.”(在買吐川一曰烏龍一曰白龍爲二淵值旱禱雨皆有驗)⁽²⁵⁾

라고 하였으니 장소가 매토천이라고 하였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언급한 기우제(祈雨祭) 부분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제 매토천이 어디인지 밝히기만 하면 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봉화현(奉化縣) 산천(山川) 조에 매토천(買吐川)이 나오니,

“매토천은 매토부곡에 있는데 태백산 황지에서 흘러온 물로 예안현의 나화석 상류이다.”(買吐川:在買吐部曲出太白山黃池卽禮安縣羅火石上流)⁽²⁶⁾

라고 하였고, 대동지지(大東地志)의 봉화(奉化) 산수(山水) 조에 보면,

“매토천은 봉화 동쪽 50리에 있는데 황지에서 발원한 물로 도미천과 더불어



어 합류하여 남쪽으로 흘러가 예안 땅 단사계에 이른다.”(買吐川:東五十里源出潢池與道美川合而南流至禮安地爲丹砂溪)⁽²⁷⁾

라고 하여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지만 봉화 동쪽 50리에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과 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봉화현(奉化縣) 고적(古跡) 조에 보면 매토부곡(買吐部曲)이 나오는데,

“매토부곡의 다른 이름은 청둔이라 한다. 본래 안동부에 속했으나 고려 공양왕 3년에 봉화현에 속하게 되었다. 현의 동쪽 14리에 있다.”(別號靑屯本屬安東府高麗恭讓王三年來屬在縣東十四里)⁽²⁸⁾

라고 하였다.

위에서 예시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대동지지(大東地志) 경상북도 봉화군읍지(慶尙北道奉化郡邑誌) 등 세 가지 기록을 종합해보면 용연(龍淵)은 매토천(買吐川)에 있고 매토천(買吐川)은 매토부곡(買吐部曲)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매토부곡(買吐部曲)은 봉화현(奉化縣)의 동쪽 14리에 있고 매토천(買吐川)도 봉화 동쪽 50리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연(龍淵)은 매토천(買吐川)에 있는데 매토천은 황지(黃池)에서 흘러가는 낙동강(洛東江)의 본류(本流)로 지금의 청량산(淸涼山) 서쪽의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일대라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봉화현(奉化縣) 산천(山川) 조에 태백산(太白山)이 나오는데,

“태백산은 봉화현의 북쪽 73리에 있다.”(太白山:在縣北七十三里)⁽²⁹⁾

라고 하였다.

태백산(太白山)은 봉화에서 북쪽으로 73리이고 용연(龍淵)은 봉화에서 동쪽으로 50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 기록만으로 봐도 동여도(東輿圖)의 표기가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 알만하다.

참고로 경상북도 북부 지방의 대표적 지지(地誌)라 할 영가지(永嘉誌)에는

용연(龍淵)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봉화군청(奉化郡廳)을 찾아 문의하니 서기 1996년에 발간된 <봉화의 촌락과 지명>이라는 책자가 있기에 살펴 보았으나 거기에도 태백산(太白山) 아래에 용연(龍淵)이라는 지명(地名)은 없었다.

(4) 아곡천(阿谷川)

동여도(東輿圖)에 보면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中峯里) 쯤 되는 곳의 하천을 아곡천(阿谷川)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아곡천은 다른 이름으로 아시천(鴉柴川)이라고 부르는데, 현재의 두타산(頭陀山) 남쪽에 있는 번천리(番川里)의 옛 이름이다.

서기 1916년에 심의승(沈宜昇)이 쓴 삼척군지(三陟郡誌)의 하장면(下長面) 번천리(番川里)에 보면,

“본 마을은 황무지 들이 꽤 넓으므로 처음에는 벌내(벌안, 버덩안)라 하더니 이것이 와전되어 번천(翻川) 또는 번천(番川)이라 하며, 또 아시내(鴉柴川)란 속어(俗語)도 있더니 이것은 곧 전계(前溪: 아시내)가 오전(誤傳)됨이더니 지금은 번천(番川)으로 관칭(官稱) 하다.”(本里난 荒野稍廣함으로써 最初, 伐內(벌안, 버덩안)라 稱하더니 此가 訛傳하야 翻川 又난 番川이라하며 且, 鴉柴川(아시내)이란 俗語도 有하니 此, 卽, 前溪가 誤傳됨이더니 今에난 番川으로 官稱하다.)⁽³⁰⁾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아시내’를 ‘아실내’라고도 했는데, 고어(古語)에 ‘실’은 골짜기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자(漢字)로 ‘谷(곡)’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아곡천(阿谷川)은 ‘아실내’의 이두적기이므로 아곡천(아곡천)이나 아시천(아시천)이나 ‘아시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계(前溪)는 ‘앞내’인데 고어(古語)에 ‘아시내’라 하였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 삼척(三陟) 산수(山水)에 보면, 아곡천(阿谷川)이 나오는데,



“아곡천은 삼척의 서쪽 50리에 있는데 그 근원은 두타산으로 죽현천에 합류한다.”(西五十里源出頭陀山合于竹峴川)⁽³¹⁾

라고 했다. 같은 책 같은 곳 죽현천(竹峴川) 조에 보면,

“죽현천은 서쪽 60리에 있는데 정선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西六十里詳旌善)⁽³²⁾

라고 하였으니. 같은 책 같은 곳 정선(旌善) 산수(山水) 조의 죽현천(竹峴川)을 보니,

“죽현천은 동쪽 50리에 있는데 그 근원은 창옥봉에서 흘러나오고 북쪽으로 흘러가서 여량역에 이르러 소래동천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가서 성석촌에 이르러 세천으로 들어간다.”(東五十里源出蒼玉峯北流至餘糧驛過素來洞川西流至省石村入細川)⁽³³⁾

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아곡천(阿谷川)은 두타산(頭陀山) 아래에 있고 죽현천(竹峴川)은 창옥봉(蒼玉峯) 아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창옥봉은 현재의 금대봉(金臺峯)이나 천의봉(매봉산) 쪽으로 보고 두타산(頭陀山)은 현재의 두타산이다. 그러니 대동지지(大東地志)도 김정호(金正浩)가 지었고 동여도(東輿圖)도 김정호(金正浩)가 그렸다고 하는데 두 기록이 서로 모순점이 있다면 지도(地圖) 자체가 관념적이라고 할 수 밖에 더 있겠는가.

(5) 죽현천(竹峴川)

죽현천(竹峴川)은 죽현원(竹峴院)이 있는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라서 그 이름을 따서 죽현천(竹峴川)이라고 했다. 태백문화원에서 발간한 <사조동지명지>에 보면,

“죽현천(竹峴川)은 바로 원동(院洞)에 있었던 죽현원(竹峴院)의 명칭을 따서 붙인 이름으로 되찾아야 할 하천의 이름이다.”⁽³⁴⁾

라고 하였다.

결국 죽현원(竹峴院)이 있던 원동(院洞)에서 흐르는 하천이 죽현천(竹峴川)이므로 두타산 밑에서 흐르는 하천은 아곡천(阿谷川) 내지 아시천(鴉柴川)이

지 죽현천(竹峴川)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동여도(東輿圖)에서는 두타산(頭陀山) 아래에 죽현천(竹峴川)을 표기해 놓았으니 죽현천(竹峴川)의 위치가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갈전산(葛田山)

갈전(葛田)은 죽현천(竹峴川)과 아곡천(阿谷川)이 합수한 다음 30리는 더 흘러가야 있는 마을이다. 그런데 동여도(東輿圖)를 보면 두타산에서 흘러나오는 아곡천(阿谷川) 위쪽인 사미창(四美倉) 부근에 표기하여 놓았다.

(7) 토산(兔山)

토산(兔山)은 갈전(葛田)에서 10리는 더 하류(下流)에 있는 마을이다. 역시나 사미창(四美倉) 부근에 표기하여 놓았다.

(8) 대전리(大田里)

대전리(大田里)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할에 속한 마을로 역둔출장소 관할 7개리 가운데 대표적인 마을로서 밭이 넓고 커한밭 또는 큰 밭이라 한 동네로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에 나오는 마을이다. 척주지 장생리(長生里) 조에 보면,

“대전 서남쪽 20리에 한이수(汗伊藪)가 있고 그 위에 용추(龍湫)가 있다.”
(大田西南二十里汗伊藪其上龍湫)⁽³⁵⁾

라고 하여 한이수(한소리)와 대전리(大田里)는 불과 20리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도 한소리(汗沼里)와 대전리(大田里)는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 동네로 이 마을에서 흐르는 물은 서류(西流)하여 강원도 정선군 동면으로 흘러가 정선 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만난다. 그런데 동여도(東輿圖)



에서는 북류(北流)하여 죽현천(竹峴川)에 합류하는 지점에 다가 표기하여 놓았으니 얼마나 방향과 산맥 표시가 잘못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대전리(大田里)에서 고개 하나 넘어 죽현천(竹峴川) 하류(下流)로 50리는 가야 갈전리(葛田里)가 나오는데, 더 상류(上流) 쪽에 갈전리(葛田里)와 토산리(兔山里)가 표기되어 있으니 얼마나 엉터리인가?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할 7개리(七個里)는 대전리(大田里)를 비롯하여 둔전리(屯田里), 역둔리(易屯里), 용연리(龍淵里), 어리(於里), 판문리(板門里), 한소리(汗沼里)로 이들 7개리의 하천(河川) 물은 서류(西流)하여 정선군(旌善郡) 동면(東面)으로 흘러간다.

(9) 용추(龍湫)

이 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지명(地名)으로 일부에서 한강(漢江)의 발원지로 추정하며 검룡소(儉龍沼)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검룡소(儉龍沼)와 용추(龍湫)는 다르다는 것이다.

옛날 지도(地圖)에 표기되는 지명(地名)들은 당시 향토지(鄉土誌)나 각종 문헌에 한번이라도 등장하는 이름이거나 현지 주민들에게 상당히 지명도(知名度)가 있어야 가능하였으리라 생각 된다.

지도(地圖) 제작자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명을 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동여도(東輿圖)를 만든 사람도 위치는 틀릴 수 있어도 표기한 지명(地名)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예컨대 각종 문헌이나 지지(地誌) 향토지(鄉土誌) 등에 나오는 지명을 표기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추(龍湫)도 상당히 널리 알려진 명소(名所)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삼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향토지 격인 척주지(陟州誌)에 용추(龍湫)가 나온다.

척주지(陟州誌)는 서기 1662년 조선 현종(顯宗) 3년에 당시 삼척도호부사(三陟都護府使)로 재직하던 허목(許穆)에 의해 저술되었다. 그 책의 장생리

(長生里) 조에 보면,

“대전리 서남쪽 20리에 한이수(汗伊藪)가 있고 그 위에 용추(龍湫)가 있다. 냇물은 바위굴에서 나오는데 깊어서 바닥을 알 수 없다고 한다. 가물면 곧 기우제를 지낸다.”(大田西南二十里汗伊藪其上龍湫川出巖竇其深無底天旱則禱雨)⁽³⁶⁾
라고 하며 용추(龍湫)가 가물 때 기우제를 올리는 장소임을 밝히고 있다.

한이수(汗伊藪)는 지금의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汗沼里)이다. 한소리는 사미창(四美倉)이 있던 상사미리(上四美里:上士美里)를 지나서 죽현원(竹峴院)이 있던 원동리(院洞里)를 지나 고개 하나를 넘어가야 닿을 수 있는 동네이다.

삼척시(三陟市)가 되기 전 삼척군(三陟郡) 시절 만든 삼척군지(三陟郡誌)의 읍면리지(邑面里誌) 하장면(下長面) 용연리(龍淵里) 조에 보면,

“마을 서북방에 龍湫(용추)가 있으므로 龍沼洞(용숫골)이라 일러오더니 이것이 龍淵(용연)이 되었다.”⁽³⁷⁾
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책 같은 곳 한소리(汗沼里) 조에 보면,

“이 마을은 정선군 경계에 龍沼(용소)가 있어 한소(大沼)라 일러 왔는데, 許穆(허목)이 쓴 陟州誌(1662)에는 「汗伊藪」(한이수)라 기록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정비에 따라 汗沼里(한소리)로 하였다.”⁽³⁸⁾

이어서 용소(龍沼)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니,

“龍沼는 매우 깊어 그 밑바닥을 헤아릴 수 없으며 가물이 들면 祈雨祭를 지낸다.”⁽³⁹⁾
라고 하였다.

과거 허목(許穆)이 지은 척주지(陟州誌)에는 한이수(汗伊藪)에 용추(龍湫)가 있다고 하였는데 근대에 발간된 책에서는 한이수(汗伊藪) 곧 한소리(汗沼里)의 이웃 마을인 용연리(龍淵里)에 용추(龍湫)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척주지(陟州誌)의 한이수(汗伊藪) 대목의 글과 근대의 삼척군지(三陟郡誌) 속의 한소리(汗沼里)와 용연리(龍淵里) 대목의 글을 합친 것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인 서기 1916년에 심의승(沈宜昇)에 의해 발간된 삼척군지(三陟郡誌) 때부터 용연리와 한소리의 기록이 나오며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와 어긋나게 되지 않았나 한다. 허목 시절엔 용연리(龍淵里)라는 마을이 없었기에 척주지에 기록이 없고 한소리(汗沼里:汗伊藪)만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실적으로 한소리(汗沼里)에서 흐르는 물은 정선군 동면으로 흘러가서 정선 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만난다. 그러나 각종 고지도(古地圖)를 보면 대개가 한소리(汗沼里), 용연리(龍淵里) 또는 대전리(大田里)에서 흐르는 물은 북류(北流)하여 죽현천(竹峴川)에 유입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동여도(東輿圖)에 표기한 용추(龍湫)는 한소리(汗沼里:汗伊藪) 용추(龍湫)를 표기한 것이라고 추단한다.

태백산(太白山) 남쪽에 엉뚱한 용연(龍淵)을 표기하듯이 태백산(太白山) 북쪽에도 기록에만 의존한 채 엉뚱한 용추(龍湫)를 표기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용추에서 흐르는 물줄기조차도 잘못 그려진 채 말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다. 동여도(東輿圖)에 나오는 잘못된 표기 가운데 태백산 부근으로 좁혀 보아도 10여개의 오류(誤謬)가 보이는데, 지도 전체를 보면 표기오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 동여도에 표기되었다고 하여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여도 역시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고 짜깁기 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기에 정밀함에는 한계가 있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척척산중의 강원도 산골을 일일이 답사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지도(古地圖)라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리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많이 이입된, 그림에 가까운 관념적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이만큼이라도 지도를 만들

었다는 것에 의미를 뒤야지, 모순 덩어리 지도를 신봉하고 그것을 사실인양 하면서 기초조사에 소홀하면 역사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6) 용추(龍湫)는 어디인가?

극히 일부에서 한강(漢江)의 발원지(發源地)라고 주장하는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의 실제 위치가 어디이며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면 물이 고여 깊은 소(沼)를 이루면 용소(龍沼)니 용연(龍淵)이니 용추(龍湫)니 하는 곳이 많다. 강원도 태백시에만 용소(龍沼)로 불리는 곳이 무려 5개나 되고 용연(龍淵)이 하나 용담(龍潭)이 하나 있다.

태백시 주변으로 넓히면 용소(龍沼)는 수십 개가 되며 용추(龍湫)라 하는 곳도 10여개나 된다. 용추(龍湫)는 대개 폭포 아래의 깊은 소(沼)를 일컫는 말로 지방에 따라서는 폭포 자체를 용추(龍湫)라고 한다. 그러니 용추(龍湫)가 되려면 폭포 비슷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가까운 동해시 무릉계(武陵溪)에 가면 용추폭포(龍湫瀑布)가 있는데, 바위 절벽 아래에 크게 한자(漢字)로 용추(龍湫)라고 써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헌 가운데 용추(龍湫)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서기1662년 삼척도호부사(三陟都護府使)였던 허목(許穆)이 저술한 척주지(陟州誌)이다. 척주지 장생리(長生里) 조에 보면,

“대전리 서남쪽 20리에 한이수(汗伊藪)가 있고 그 위에 용추(龍湫)가 있다. 냇물은 바위굴에서 나오는데, 깊어서 바닥을 알 수 없다고 한다. 가물면 곧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大田西南二十里汗伊藪其上龍湫川出晷竇其深無底天旱則禱雨)⁽⁴⁰⁾

라고 하여 하장면(下長面) 부근의 용추(龍湫)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동여도(東輿圖)에서 표기한 용추(龍湫)의 위치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일



대와 강원도 태백시 북쪽 한강 수계 일대로 추정되는 곳이기에 이 일대의 기록으로는 척주지(陟州誌)가 최초인 것이다.

척주지(陟州誌)에는 용추(龍湫)가 한이수(汗伊藪)라는 마을에 있다고 하였으니 한이수(汗伊藪)가 어딘지 밝히면 될 것이다. 서기 1916년 일제 강점기 때 삼척군수(三陟郡守) 심의승(沈宜昇)에 의해 발간된 삼척군지(三陟郡誌)의 하장면(下長面) 한소리(汗沼里) 조에 보면,

“許穆,時에 汗伊藪라 記하얏고, 今에난 汗沼里로 官稱하니라.(又一說, 寒水里라 云)”⁽⁴¹⁾

라고 하여 오늘날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汗沼里)가 그 옛날 한이수(汗伊藪)였음을 밝히고 있다. 혹시나 하여 서기 1963년 발간된 최만희(崔晩熙)의 진주지(眞珠誌) 읍면리(邑面里) 조의 하장면(下長面) 한소리(汗沼里)에 보면,

“옛날에 한이수(汗伊藪)라고 불렀고, 또 한소(大沼)라 했고, 한수리(寒水里)라 하기도 했다. 병진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舊稱汗伊藪又大沼(舊誌)一云寒水里丙辰改今名)⁽⁴²⁾

라고 하며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를 인용하여 한소리(汗沼里)의 옛 이름이 한이수(汗伊藪)였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 확실히 하기위해 서기 1988년 발간된 삼척군지(三陟郡誌)의 읍면리지(邑面里誌) 하장면(下長面) 한소리(汗沼里) 조에 보면,

“許穆이 쓴 陟州誌(1662)에는「汗伊藪」라 기록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정비에 따라 汗沼里로 하였다.”⁽⁴³⁾

라고 하여 한소리(汗沼里)가 한이수(汗伊藪)였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한이수(汗伊藪)가 나중에 한소리(汗沼里)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용추(龍湫)의 위치에 대해서는 허목(許穆)만 한소리(汗沼里:汗伊藪)에 있다고 했고, 심의승(沈宜昇)이나 삼척군(三陟郡)에서는 용연리(龍淵里)에 용추(龍湫)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동여도가 제작된 뒤에 저술된 서책은 인용할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참고하여 살펴보겠다.

서기1916년에 발간된 심의승(沈宜昇)의 삼척군지(三陟郡誌) 하장면(下長面) 용연리(龍淵里) 조에 보면,

“本里 西北方에 龍湫 有하얏슴으로써 龍沼洞(용소굴)이라 稱하더니 此가 龍淵으로 되다.”⁽⁴⁴⁾

라고 하여 용연리(龍淵里)의 용소(龍沼)가 용추(龍湫)라고 하였다.

처음 용추(龍湫)를 언급한 허목(許穆)은 용추(龍湫)가 한이수(汗伊藪) 곧 한소리(汗沼里)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 250년 뒤에 편찬된 심의승(沈宜昇)의 삼척군지(三陟郡誌)에 의하면 용추(龍湫)는 한소리(汗沼里)의 이웃 동내인 용연리(龍淵里)에 있다고 했다.

약 300년 뒤에 편찬된 진주지(眞珠誌)에는 언급이 없고 326년 뒤에 나온 삼척군(三陟郡)에서 편찬한 삼척군지(三陟郡誌)에는 심의승(沈宜昇)의 설(說)을 좇아 용추(龍湫)가 용연리(龍淵里)에 있다고 하였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하고 여러 이유를 조사하면서, 한 때 한소리(汗沼里)와 판문리(板門里), 어리(於里), 용연리(龍淵里)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아 공촌(空村)이 된 적이 있어서 원주민이 모두 떠나고 수 십 년이 지나 겨우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니 마을의 역사가 단절된 시기가 있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이 보니 한소리(汗沼里)에도 바위굴 속에 시퍼런 물이 고여 있는 소(沼)가 있고, 용연리(龍淵里)에도 바위굴 속에 시퍼런 물이 고여 있는 소(沼)가 있고 그 물이 굴 밖으로 쏟아져 내리며 폭포를 이루기에 각자 용소(龍沼)라고 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기 1662년에 허목(許穆)이 지은 척주지(陟州誌) 가운데 척주지하(陟州誌下)에 보면,

“장생리에 사는 노인이 전하는 말에, 장생리는 한강(大江)의 가장 먼 곳에 있어 광해군 시절에 각종 궁궐 짓는 재목을 벌채(伐材)하는 부역(負役)은 이



곳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징포(徵布)를 무수히 하므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사람이 이어졌고 울탄내외촌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아 비어 있는데, 지금까지 40여년이나 되어도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쓸쓸한 마을이라고 했다.”(長生父老傳言大江最遠光海時諸營建伐材之役不及於此然收布無數流亡相接蔚吞內外村落空虛至今四十餘年烟戶蕭條云)⁽⁴⁵⁾

라고 하였으니, 울탄내외촌이 한소리 용연리 일대이므로 이곳에 수 십 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 지역의 역사인들 제대로 전해졌겠는 가 의문이 든다.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살고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소리 보다는 용연리 쪽 주장이 더 강하고 타당성이 있어 심의승(沈宜昇)은 용연리(龍淵里)의 용소(龍沼)를 용추(龍湫)로 비정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유추한다.

(1)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는 폭포를 이루지 않고 바위굴에서 물이 솟아나 오는 형태인데 말이 한소리 용소지,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정선군 백전리(柏田里)에 있다. 이것은 과거의 행정구역은 같은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하천을 경계로 동쪽은 강원도 삼척시이고 서쪽은 강원도 정선군이다. 용소는 하천 건너 서쪽 정선군 땅 대지산(大枝山) 아래에 있으며 어귀는 거대한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암벽 아래에 세 개의 굴이 있는데 가장 아래쪽 굴로 장마 때 물이 넘쳐흘러 나온다. 평소에는 물이 넘치지 않고 아래쪽 굴속을 들여다보면 시퍼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동굴 바깥 쪽 약 100m 아래쪽 하천 한가운데에서 물이 솟는 곳이 있는데 아마도 용소의 물이 이곳으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물 때 개의 머리를 잘라서 용소에 던지면 3일 안에 비가 내려 개머리를 토해 낸다고 한다.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는 너무나 유명하여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정선군 지방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명소(名所)이다.

한소리 용소



(2) 용연리(龍淵里) 용소(龍沼)

용연리(龍淵里) 용소(龍沼)는 동굴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며 폭포를 이루기에 형태상으로 볼 때는 용연리의 용소(龍沼)가 용추(龍湫)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용연리의 용소는 산 중턱에 있으며 물이 흘러나오는 동굴 속을 들어가면 동굴 가득 물이 차 있으며 그 물이 흘러넘쳐 약2m정도의 폭포를 이룬다. 현재의 용소는 솟용소라고 하고 반대편 너래골에 암용소가 있다. 솟용소는 물이 쏟아지며 폭포를 이루는데 암용소는 독처럼 생긴 바위 홈에 물이 고여 있는 형태이다. 용연리의 용소도 가물 때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용연리 용소



(3)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내 용소(龍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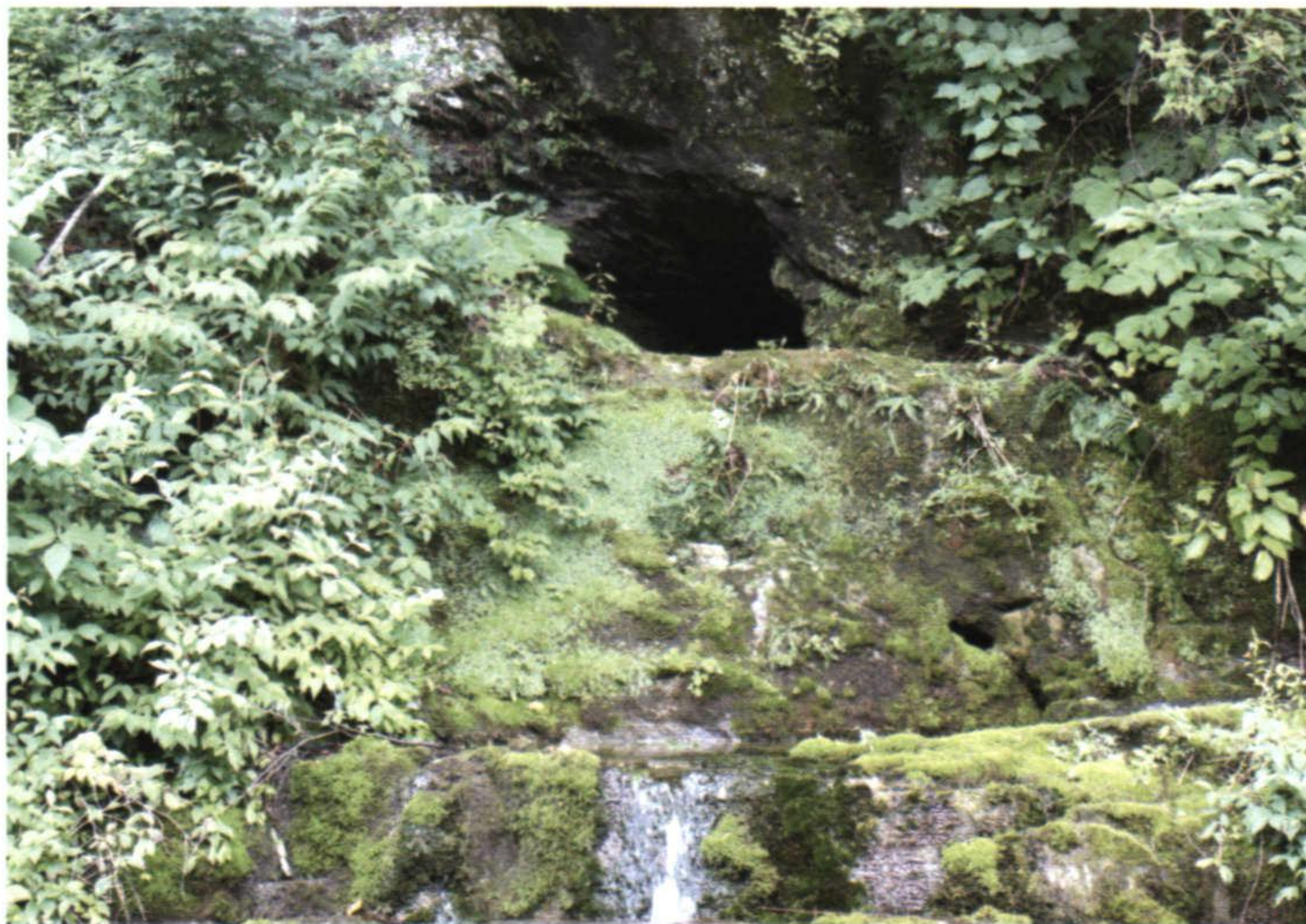
역둔출장소 관내 용소(龍沼)들을 거론하는 것은, 역둔출장소 관할 7개리의 하천 물은 여느 하장면 지역의 하천 물이 북류(北流)하여 죽현천(竹峴川)에 유입되는데 반해, 서류(西流)하여 정선군 동면으로 흘러가는 같은 유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석회암(石灰巖) 지대이기에 석회동굴(石灰洞窟)이 많고 물이 흘러나오거나 솟는 곳이 많아 용소(龍沼)라고 불리는 곳 또한 많기에 함께 다룬다.

참고로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에서 멀리 떨어져 큰 산맥을 넘어야 면사무소로 갈 수 있기에 주민 편의를 위해 서기1964년 2

월 1일 삼척군 조례 제72호에 의거 설치된 출장소로 대전리(大田里), 역둔리(易屯里), 둔전리(屯田里), 용연리(龍淵里), 어리(於里), 판문리(板門里), 한소리(汗沼里) 등 7개리를 관할하고 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용연리(龍淵里)와 한소리(汗沼里)가 역둔출장소 관할이다.

앞에서 말한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 용연리(龍淵里) 용소(龍沼) 말고도 용연리(龍淵里)에 12개의 용소(龍沼)가 있다고 하며 둔전리(屯田里)에도 기우제를 지내던 용소(龍沼)가 있었으나 지금은 메워지고 한태골(汗太谷)에는 물이 나오는 석굴(石窟)이 있는데 산맥이하는 제당(祭堂)이라 한다. 어리(於里)와 대전리에도 구룡소(九龍沼)라는 곳이 있다. 용연리(龍淵里)에서 산하나 넘어 광동리(廣洞里)에 용소(龍沼)가 있고 추동리(楸洞里)에도 물이 흘러나오는 석굴(石窟)이 있으며 판문리(板門里)에도 바위굴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와 마을 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피골에도 물이 흘러나오는 용굴(龍窟)이라 부르는 피골굴이 있다.

용연리 작은 용소





(4)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나는 용추(龍湫)

동여도(東輿圖)에서는 한소리(汗沼里)나 용연리(龍淵里)나 대전리(大田里)에서 흐르는 물이 죽현천(竹峴川)으로 유입되어 북류(北流)하여 임계(臨溪)로 흘러가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할 7개리의 하천 물은 오두재에서 대지산(大枝山)으로 이어지는 말굽형의 산맥을 넘지 못하고 모두 서류(西流)하여 강원도 정선군 동면으로 흘러가서 정선 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합류한다. 방향이 완전히 틀리다. 그러므로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地圖)들은 모두가 한소리(汗沼里), 용연리(龍淵里), 대전리(大田里) 등 역둔출장소 관할 7개리의 삼척 땅 물은 정선읍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북류(北流)하여 죽현천(竹峴川)에 합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청구도(靑丘圖)도 마찬가지다. 동여도(東輿圖)도 김정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김정호는 용연리, 한소리, 대전리 일대를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삼척 땅이니 그 지방 하천의 물은 당연히 삼척 땅으로 흘러간다고 믿고 관념적으로 그린 지도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정상기류(鄭尙驥流)의 지도(地圖)들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지역의 행정구역은 이미 서기1662년 허목(許穆)이 쓴 척주지(陟州誌)에 등장하니 200여년 뒤에 그려진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地圖)들에 위치나 산맥이 잘못 그려졌다는 것은 무슨 착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지도(古地圖)가 관념적이긴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는 용추(龍湫)에서 흐르는 물이 정확히 정선 읍내로 흐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린 지도(地圖)가 있다.

18세기 조선 영조(英祖) 연간(年間)인 서기1724~1776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미상의 지도 해동지도(海東地圖:古大4709-41-v.1-8)의 제3책 관동전도(關東全圖) 가운데 정선군(旌善郡) 지도를 보면 용추(龍湫)가 나오는데, 정확히 서류(西流)하여 정선 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합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현대의 시각과 비슷하다. 다만 용추(龍湫)를 좀 과장되게



해동지도(古大4709-4)

해동지도 가운데 정선군 지도이다
용추의 물이 정확히 서류하여 정선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만나게 그려졌다.
김정호의 동여도 보다 90~100년 앞서 그려진 지도이다



42



여지도(輿地圖)(古4709-68)

여지도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 지도 해동지도와 도안은 같으나 용추(龍湫)에 대해서는 광여도를 따라 신추(薪湫)로 표기하고 있다.



지승(地乘)(奎15423)

지승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 지도, 전체적으로 도안은 해동지도와 같으나 용추(龍湫)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다.

그려 상징성을 부여한 것 같다. 해동지도(海東地圖)는 동여도(東輿圖) 보다 적어도 90~100년 정도 앞서서 그려진 지도인데도 용추(龍湫)에서 흐르는 물이 정확히 서류하여 정선 읍내로 흘러가는 것을 그려 놓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호의 위대함이 빛을 잃는 대목이다. 이미 용추(龍湫)는 유명한 명소였고 각종 지지(地誌)나 지도(地圖)에 기록되거나 그려지는 중요한 곳이었던 것이다.

해동지도(海東地圖)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광여도(廣輿圖:古4790-58)는 지도의 형태는 해동지도와 같으나 용추(龍湫)를 신추(新湫)라고 표시한 점이 다르고, 여지도(輿地圖:古4709-68) 또한 지도의 형태는 해동지도와 같으나 용추(龍湫)를 광여도와 같이 신추(新湫)라고 표기하였으며, 지승(地乘:奎15423)이라는 지도는 형태는 해동지도와 같으나 용추 부분에 이름이 없다. 참고로 100여년 뒤에 나온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신추(新湫)를 신추(神湫)로 기록하고 있다.

용추(龍湫)를 신추(新湫)라고 표기한 것을 유추하자면, 지도가 닳거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혹은 좀이 먹어 龍(용)자가 닳아 新(신)자로 보이므로 해서 오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각종 고지도(古地圖)를 보면 글자가 마멸되어선지 당치도 않는 표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여지도(輿地圖)(古4709-68)

여지도 중에서 강원도 삼척부 지도인데 황지(黃池)를 석지(昔池)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도(奎16030)
조선지도 가운데 강원도 삼척지도이다.
대지산(大枝山)을 육지산(六枝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용추(龍湫)를 신추(新湫)로 표기한 여지도(輿地圖:古4709-68)를 보면,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황지(黃池)를 석지(昔池)로 표기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黃(황)자가 마멸되어 윗부분만 남아 昔(석)자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지도(朝鮮地圖:奎16030)에 보면,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 용추(龍湫) 뒷산인 대지산(大枝山)을 육지산(六枝山)이라고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구도(靑丘圖:古4709-21)에도 나타난다. 이는 大(대)자가 마멸되면 六(육)자로 보일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용추(龍湫)가 어디인가 하고 여러 문헌과 현지조사와 고지도(古地圖) 등을 검토해본 결과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 특히 동여도(東輿圖)에서 용추(龍湫)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정작 동여도(東輿圖) 보다 90~100여년 앞서 그린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용추(龍湫)의 위치가 정확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도(地圖)를 제작하던 가 지지(地誌)를 만들 때는 이미 지방에서 발간된 서책(書冊)이나 조사하여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만드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므로 모든 고지도(古地圖)에 그려지거나 표기되는 지명(地名)은 기존의 문헌이나 지역에서 발간된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거나 지역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라 본다.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용추(龍湫)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汗沼里)나 용연리(龍淵里)의 용소(龍沼)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동여도(東輿圖)의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다른 고지도(古地圖)가 밝혀주고 있다. 또한 용추(龍湫)와 검룡소(檢龍沼)는 위치와 의미가 다른 별개(別個)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7) 검룡소(檢龍沼)는 새로운 발견이다.

서기 1980년대 초에 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이형석(李炯石)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강의 가장 먼 물줄기

가 강원도 태백시(太白市) 창죽동(蒼竹洞)이라고 주장하며 창죽동 금대봉골 안쪽, 금대봉(金臺峯)에서 대덕산(大德山)으로 가는 산 능선 아래에서 샘을 하나 발견하고 ‘고목나무샘’ 이라 명명하고선 한강(漢江)의 발원샘이라고 언론에 소개 하였다.

그 뒤 한 동안 ‘고목나무샘’ 이 한강의 발원지로 인식되어 각종 매스컴에 소개되고 뜻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가 서울 사는 사람이기에 수도권에서는 제법 알려졌지만 정작 태백 사람들은 몰랐고 몇 년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

뜻있는 태백 사람들 몇몇이 ‘고목나무샘’ 을 찾아낸 것은 그로부터 한 참 뒤였다. 이형석씨는 지역 사람들을 못마땅하다고 여겼는지 발원지에 관한한 지역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수도권의 언론들만 상대해서 언론 보도하니 태백 사람들은 한참 뒤에 알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배제하다보니 지명(地名)의 오류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한강의 발원지가 있는 산이 금대봉인데, 그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두문동의 대성국민학교 뒤쪽에 있는 산이라고 ‘금대봉(金臺峯)’ 을 ‘대성산(大成山)’ 이라고 임의 명명한 사실이 있고, 필자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서도 한동안 사용한 바 있다. 그리고 금대봉골을 ‘움추나무골’ 이라고 하는 등 오류가 있었고, 특히 그가 낙동강의 발원샘으로 명명한 ‘너덜샘’ 도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서덜’ 이라하지 ‘너덜’ 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물론 ‘너덜샘’ 위쪽에서 새로운 샘을 필자가 발견함으로써 낙동강 발원샘의 지위는 사라졌지만, 이런 것이 지역민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공명심에선지 독자 행동이 낳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용추(龍湫)를 검룡소(儉龍沼)라고 하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마땅히 경계해야 할 덕목이다.



검룡소 준설 되기전 사진 I



검룡소 준설 되기전 사진 II



‘고목나무샘’을 찾아보고 이형석(李炯石)씨를 만나 토론 하면서 발원지에 대한 의구심과 견해 차이가 생겨, 지역민으로서 자존심 같은 것이 발동해 산속을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한 것이 ‘제당굼샘’이고 ‘검룡소’이다.

〈태백문화〉 제17집 속에 김강산(金剛山)의 ‘이제는 말한다.’에는 검룡소의 발견에 대해 상세히 밝혀놓은 것이 있으니,

“내가 검룡소를 발견한 것은 단군기원 4317년(서기1984년) 6월 어느 날이었다.”⁽⁴⁶⁾

라고 하며 발견한 때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크고 작은 돌이 쌓여 있는 돌서덜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아래 쪽에는 석회암반이 깊게 파여 용트림하듯 한데 그리로 물이 흘러 와폭(臥瀑)을 이루는 것이었으니, 간밤의 꿈이 연상되는 기이한 형상이었다. 물이 솟는 돌서덜에는 이끼와 물풀이 자라고 크고 작은 돌덩이가 어지럽게 박혀 있었고 굵은 나무가 박혀 썩어가고 있었다. 장차 검룡소가 될 곳과 처음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⁴⁷⁾

라고 하면서 처음 발견 당시의 정황과 준설되기 전의 메워진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처음 검룡소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것도 밝히고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와 마을사람들에게 물이 솟아나오는 곳의 땅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마을사람들은 말하길 그곳에는 이름이 없다고 했고, 그냥 물이 나오니 물구덩이가 아니겠냐고 했다.”⁽⁴⁸⁾

라고 하면서 지명이 없었음을 마을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어서,

“그러면서 말하길 일제시대 그곳에 물이 솟아나오는 물구덩이가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금대봉의 원시림을 베어가기 위해 그곳 물구덩이에 돌과 나무를 넣어 메우고 그 위로 산판길(임도)을 닦았다고 했다. 일본사람들이 물러가고 한국동란 뒤에도 산판 트럭들이 이 길을 통해 금대봉의 원시림을 실어 날



랐다. 그 후 이 길은 차량이 다니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나무가 자라고 토사가 밀려와 쌓여 그 밑으로 겨우 물이 흐르는 형상이 되었던 것이 그 당시 모습이 었다.”⁽⁴⁹⁾

라고 하면서 물구덩이가 메워지게 된 내력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강산은 검룡소가 메워진 뒤 준설하게 되는 과정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전설(傳說)을 만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모델이 바로 검룡소(儉龍沼)에서 산 하나 넘으면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굴거랑’ 전설이었다.

〈태백의 지명유래〉 화전동(禾田洞) 조에 보면 굴거랑이 나오는데,

“...(전략) 옛날엔 굴거랑 안쪽 물이 나오는 부분에 깊은 굴이 있고 그 굴

소지올리는 모습



준설



앞에 깊은 소(沼)가 있었는데 마을의 소가 물을 마시다가 못 속에 있는 이무기에게 잡혀 먹혔다. 마을사람들이 가보니 길다란 소고뼈만 물가에 있었다. 그 후 마을사람들이 못과 굴을 메워버렸다.(후략)...”(50)

라고 하였으니, 산하나 너머에 있는 화전동(禾田洞)의 굴거랑 전설과 검룡소 전설이 유사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김강산(金剛山)에 의해 발견되고 작명(作名)되어진 검룡소(檢龍沼)는 새로운 발견이지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가 아니다.

다시 <태백문화> 제17집 속의 김강산(金剛山)의 ‘이제는 말한다’를 보자,

“그 물구덩이가 있는 산이 금대봉(金臺峯)이고 나의 성(姓)이 김(金)이 이기에 금(金)자를 생각하고 그 물구덩이에서 솟아나온 물이 용트림하듯 와폭



을 이루며 흘러가기에 용(龍)자를 생각하여 금룡소(金龍沼)라고 이름을 짓게 된다. 한강 발원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창죽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창죽마을의 이해석(李海石) 통장을 통해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이 시기에 김강산은 태백의 민속놀이인 ‘갈풀썰이’를 발굴하여 창죽사람들을 동원하여 지도를 하고 있었다.) 내가 꾸민 꿈이야기를 하며 그 물구덩이를 이제는 금룡소(金龍沼)라고 불러줄 것과 그 금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는 사실과 앞으로 이 마을이 금룡소 때문에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다...(중략)...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금룡소는 발음이 되서 노인들에게는 발음이 쉽지 않아 금룡소를 검룡소로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경제를 갱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나는 금룡소를 고집할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검룡소도 괜찮다는 생각을...(중략)... 왕검(王儉) 할아버지가 우리겨레의 시조(始祖)이시니 우리의 뿌리가 되고 금룡소(金龍沼)가 한강의 시원(始源)으로 한강의 뿌리가 되니 발음이 어려운 금룡소(金龍沼) 보다는 왕검(王儉) 할아버지의 검(儉)을 따서 검룡소(儉龍沼)라고 부르는게 발음도 부드럽고 또한 검이라는 말이 고어(古語)에 신(神)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여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 금룡소(金龍沼)라고 부르던 이름을 이때에 이르러 검룡소(儉龍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바뀌 부르게 된 것이다.”⁽⁵¹⁾

라고 하며 검룡소(儉龍沼)를 처음엔 금룡소(金龍沼)로 작명 했다가 나중에 검룡소(儉龍沼)로 바뀌게 된 내력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묻혀있던 검룡소(儉龍沼)를 준설(浚渫)하는 과정도 상세히 밝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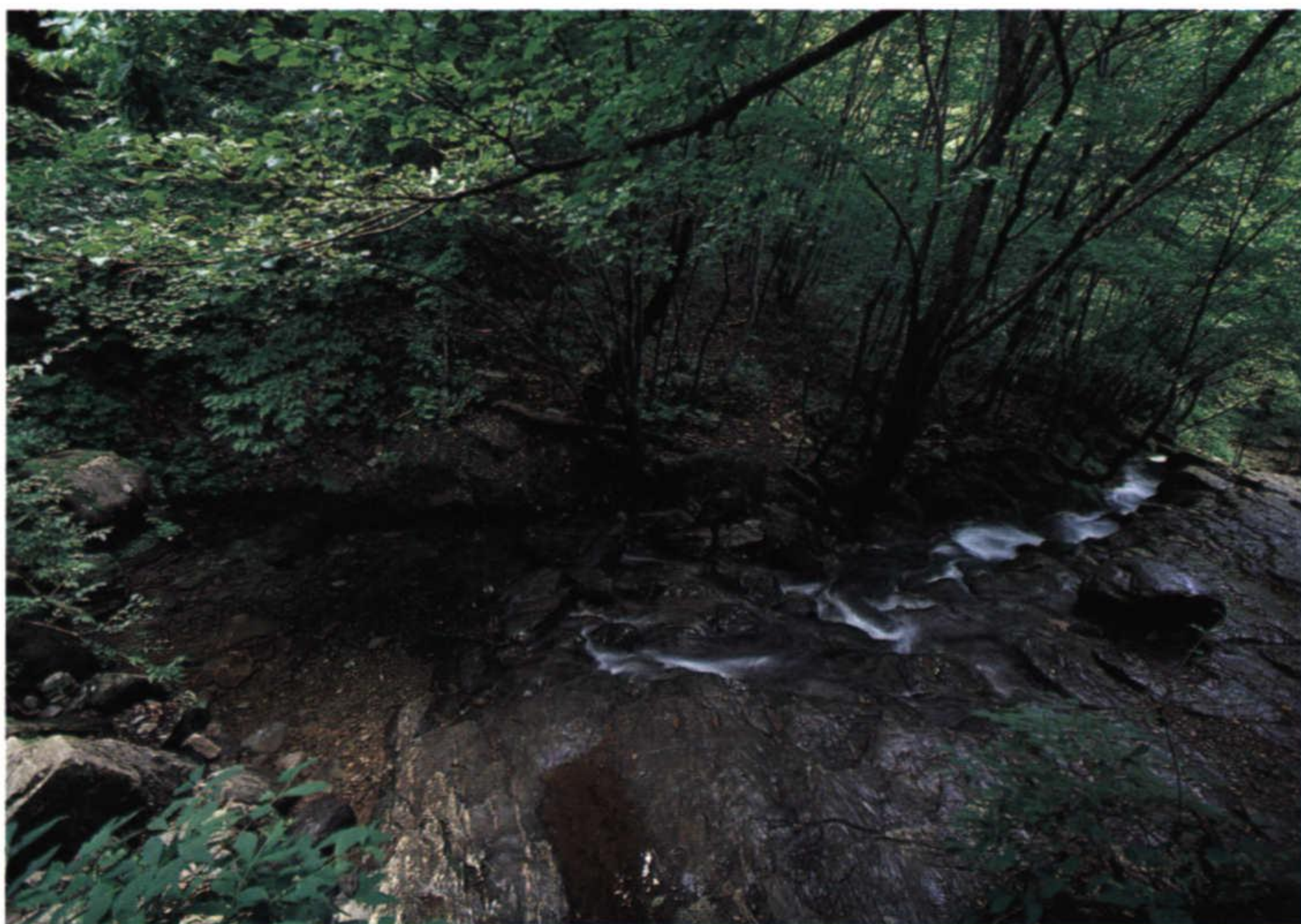
“당시 준설에는 박명순씨, 이해담씨 3형제, 또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 몇 사람이 참여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황당하다고 여겼는지 반신반의하며 작업에 임했다. 나는 하얀 한복으로 갈아입고 먼저 용신에게 고사를 지냈으며 곡괭이, 팽이, 삽을 준비해 삽에 줄을 연결시켜 가래로 만들어서 검룡소의 돌과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변변찮은 일당을 주기에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 작업을 독려하며 자부심을 일깨우길 1주일, 돌무더기였던 검룡소가 드디어 웅장

하고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⁵²⁾

라고 하면서 검룡소(儉龍沼)를 준설(浚渫)할 때의 일과 주민들과 함께 작업 하던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강원대학교 전상호(全相浩) 교수의 ‘검룡소의 명승지정과 한강 발원지 설

검룡소



정 타당성 검토’라는 논문의 조사내용 가운데 ‘㉑강원일보’ 대목을 보면,

“1986년 4월 16일, 김강산은 금대봉 기슭의 한 골짜기에서 용출량이 많아 연중 물이 흐르고 창죽천에 직접 흘러드는 한 소(沼)를 찾아 이의 이름을 검룡소로 명명하고 이를 한강의 발원지로 발표하였다. 또한 고목나무샘 위



쪽 100m쯤에 무명샘이 발견됐으나 웅달샘 정도로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1987년 1월 25일, 김강산은 고목나무샘 위쪽의 200m지점에 있는 제당 옆의 샘을 한강의 발원샘으로 제안하면서 이름을 제당굼샘으로 지었다.”⁽⁵³⁾

라고 하면서 신문 기사 내용을 조사한 바를 기록하고 있다.

검룡소(儉龍沼)를 발견하고 명명하고 준설(浚渫)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거기에 대한 자료와 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를 검룡소(儉龍沼)라고 주장하는 예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논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발표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데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각종 문헌의 내용을 잘못 적용 해석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편견이라고 본다.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 노사신(盧思愼)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 심의승(沈宜昇)의 〈삼척군지(三陟郡誌)〉, 김정경(金鼎卿)의 〈삼척 향토지〉, 최만희(崔晩熙)의 〈진주지(眞珠誌)〉, 삼척군(三陟郡)의 〈삼척군지(三陟郡誌)〉, 〈삼척군 지명유래지〉, 김강산(金剛山)의 〈태백의 지명유래〉, 〈사조동 지명지〉, 등 삼척시(三陟市)와 태백시(太白市)에 관련된 그 어떤 문헌에도 용추(龍湫)가 검룡소(儉龍沼)라는 기록은 없다. 아울러 검룡소(儉龍沼)라는 지명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검룡소가 있는 창죽마을 부근에는 용추(龍湫)라는 지명이 아예 없다. 하기에 서기 1984년에 새로이 발견되고 작명된 지명(地名)이 옛 문헌에 나올 리가 있겠는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5만분의1 지형도(도엽번호NJ52-10-26태백)를



국립지리원 발행

1:50000지형도 도엽번호 NJ52-10-26태백 . 도엽번호 NJ52-10-19임계





보면, 금대봉 아래에 있는 검룡소에 ‘한강 발원지’ 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것으로 검룡소(儉龍沼)는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한강(漢江)의 발원지(發源地)이며, 서기2010년 국가지정 명승 제73호로 지정까지 되었으니 검룡소는 명실상부한 국가적 명소가 된 것이다.

검룡소(儉龍沼)는 현대적 지도(地圖)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역사적 기록에만 의존하던 강의 발원지에 대한 인식이, 과학적 척도(尺度)의 새로운 강의 발원지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된 현대인의 쾌거이다. 그러므로 검룡소(儉龍沼)는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대의 새로운 발견이자 자산이다.

3.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儉龍沼)를 발견한 사람은 김강산(金剛山)이며 그에 의해 검룡소(儉龍沼)라고 명명되어지고 묻혀있던 물구덩이가 준설(浚渫)되면서 지금처럼 신비한 명소가 되었고 국가지정 명승지 제73호가 되는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를 검룡소(儉龍沼)로 보는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밝히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견해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발간되는 책자에 실어 널리 배포하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강 발원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었는데,⁽⁵⁴⁾ 어찌하여 조금만 주의(注意)하면 진실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행하였는지 그것을 요약하면,

- 1), 특정인의 검룡소(儉龍沼) 발견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 2), 갈수록 검룡소(儉龍沼)의 명성과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역사(歷史)는 일천하다,
- 3), 검룡소(儉龍沼)의 있지도 않은 역사를 조작하기 위한 건강부회(牽強附會)의 결과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배웠다는 사람은 사회의 양심이고 지성이며 인격의 모범이요 인간의 도덕성을 내면에 간직한 채 부와 귀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 상승하고자 하는 존재일 것이다. 알팍한 앎을 스스로 질타하며 세상 무서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배운 자 일 것이다. 자연 지리적 인식을 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통설적 역사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배우고자 하는 자의 자질은 절대 현대적 지리학으로 진일보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시대이건 선구자(先驅者)는 있었고 그 앞서가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이 땅에 또한 있어 왔다.

처음 발견 당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며 사비로 길을 닦고 준설하며 검룡소라고 명명하여 한강 발원지로 대내외에 알리기를 거듭한 지 27여 년, 이제 그 결실이 되어 명실상부한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되고 아울러 국가지정 명승지 제 73호로 지정까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생겨나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검룡소(檢龍沼)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고 역사를 왜곡하려 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註)

- (1) 洪性益, 문화역사지리 제22권 제1호, 漢江 發源地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再檢討: 太白山 龍湫를 중심으로, 2010
- (2) 朝鮮王朝實錄, 世宗 16年 5月 24日
- (3)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12月 28日
- (4) 朝鮮王朝實錄, 世宗 6年 12月 29日
- (5) 朝鮮王朝實錄, 世祖 6年 8月 4日
- (6) 朝鮮王朝實錄, 世祖 12年 11月 4日
- (7) 朝鮮王朝實錄, 睿宗 1年 9月 18日
- (8) 朝鮮王朝實錄, 中宗 31年 5月 10日
- (9) 朝鮮王朝實錄, 宣祖 25年 5月 25日



- (10) 朝鮮王朝實錄. 肅宗 3年 5月 7日
- (11) 朝鮮王朝實錄. 肅宗 39年 6月 2日
- (12) 劉煦 舊唐書 列傳 第一百四十九上 高麗 中華書局 1995
- (13)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3年 11月 15日
- (14) 朝鮮王朝實錄. 中宗 8年 2月 4日
- (15) 朝鮮王朝實錄. 英祖 33年 8月 9日
- (16) 李相泰.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1999 (재인용)
- (17) 申櫨. 大東方輿圖序. 琴堂初稿(奎古3428-339)
- (18) 崔漢綺. 靑邱圖題 靑邱圖(乾)
- (19) 劉在建. 里鄉見聞錄 金古山正浩
- (20) 李相泰.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1999
- (21) 李相泰.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1999
- (22) 金正浩. 大東地志 三陟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 (23) 盧思慎. 東國輿地勝覽 卷二十五 奉化縣 山川 明文堂 1981
- (24) 金正浩. 大東地志 奉化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 (25) 慶尙北道奉化郡邑誌 山川
- (26) 盧思慎. 東國輿地勝覽 奉化縣 山川 明文堂 1981
- (27) 金正浩. 大東地志 奉化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 (28) 盧思慎. 東國輿地勝覽 奉化縣 古跡 明文堂 1981
- (29) 盧思慎. 東國輿地勝覽 奉化縣 山川 明文堂 1999
- (30) 沈宜昇. 三陟郡誌 下長面 番川里 1916
- (31) 金正浩. 大東地志 三陟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 (32) 金正浩. 大東地志 三陟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 (33) 金正浩. 大東地志 旌善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 (34) 金剛山. 土助洞地名誌 院洞 太白文化院 2007
- (35) 許穆. 陟州誌 長生里 三陟鄉土文化研究會 1991
- (36) 許穆. 陟州誌 長生里 三陟鄉土文化研究會 1991
- (37) 三陟郡. 三陟郡誌 邑面里地 下長面 1988
- (38) 三陟郡. 三陟郡誌 邑面里誌 下長面 1988
- (39) 三陟郡. 三陟軍誌 邑面里誌 下長面 1988
- (40) 許穆. 陟州誌 長生里 三陟鄉土文化研究會 1991
- (41) 沈宜昇. 三陟郡誌 下長面 汗沼里 1916
- (42) 崔晚熙. 眞珠誌 邑面里誌 下長面 1963

- (43) 三陟郡 三陟郡誌 邑面里誌 下長面 汗沼里 1988
- (44) 沈宜昇 三陟郡誌 下長面 龍淵里 1916
- (45) 許穆 陟州誌 長生里 三陟郷土文化研究會 1991
- (46)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 (47)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 (48)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 (49)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 (50) 金剛山 太白的 地名由來 太白文化院 1989
- (51)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 (52)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 (53) 全相浩 太白文化 第23輯 김룡소의 명승지정과 한강발원지 설정 타당성 검토 2010
- (54) 김도현. 고문헌과 고지도로 만나는 태백산 문화권 3대 강 발원지. 태백시. 2010

한강 발원지의 역사적 논란에 대한 검토

용추(龍湫)는 검룡소(儉龍沼)가 아니다

단군기원4344년(서기2011년)12월28일 인쇄

단군기원4344년(서기2011년)12월30일 발행

발행처 | 태백문화원

발행인 | 김 강 산

저 자 | 김 강 산

인쇄처 | 문 성 사

* 책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무단사용을 금함 *



경력 - 국편 태백시사료조사위원
독립기념관 자료조사위원
강원도문화재 전문위원
태백산 천제 위원회위원장
태백향토사 연구소장
태백문화원장



김 강 산
[태백문화원장]

저서 - 虎食葬
太白의地名由來
우리고향 태백
白景文
靈山太白
태백의 어제와 오늘
태백시지 공저
士助洞地名誌
太白의祭堂

